

뉴욕, 공모전을 통한 도심 속 소규모 저렴주택 디자인 개발 시도

<https://urbaninfilldesigncompetition.cityofnewyork.us/>

<https://urbaninfilldesigncompetition.cityofnewyork.us/wp-content/uploads/2019/02/Big-Ideas-for-Small-Lots-NYC-Competition-Documents-and-Appendix.pdf>

뉴욕시가 도심 속 빈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지을 수 있는 소규모 저렴주택(affordable housing) 디자인 개발을 위해 'Big Ideas for Small Lots' 공모전을 진행한다. 이 공모전은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(HPD)과 AIA 뉴욕지부(AIANY)가 함께 추진하며, 뉴욕시 내 유휴 시유지에 적용할 수 있는 소규모 저렴주택 디자인과 시공 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2017년 11월 뉴욕시장 빌 더블라지오(Bill de Blasio)는 'Housing New York 2.0'을 발표하고, 2026년까지 새로 짓거나 보존하는 방식을 통해 저렴주택 30만 가구를 확보하여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. 이후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은 저렴주택을 지을 수 있는 미활용 시유지를 적극적으로 파악했으며, 저렴주택 조성을 진행해왔다. 아직 개발하지 않은, 남은 부지는 크기가 매우 협소하여 개발이 까다로운데, 시는 이번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이 부지에 대한 새로운 활용 방안을 찾고 시가 제공할 수 있는 저렴주택의 선택지를 확대 모색한다는 방침이다.

Big Ideas for Small Lots 공모전의 목표

- 협소 부지 주택 디자인의 우수성 촉진
- 높은 질의 소규모 저렴주택 디자인과 시공 전략 모색
- 실현 가능하고 다양한 장소와 지역 환경에서 재제(再製)가 가능한 개발 방안의 실증
- 미활용 시유지 개발에 중요한 파트너로서 건축가의 능력 개발과 참여 촉진

공모전은 2019년 2월 시작하여 5월에 1단계 결선 진출자를 발표하게 된다.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과 AIA 뉴욕지부는 진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 및 네트워킹 세션 등을 제공하여, 진출자들이 특정 부지에 대한 디자인 개발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 9월에 최종 제안서를 제출받아, 12월에는 해당 부지에 실제 개발을 진행하게 된다.



Big Ideas for Small Lots에서 제시한 부지

자료: NYC HPD, AIANY, Big Ideas for Small Lots Design Brief, <https://urbaninfilldesigncompetition.cityofnewyork.us>
(검색일: 2019.3.13)